



털리는 첼시의 한 창고 건물을 사무실 및 컬렉션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집한 한국 미술 관련 서적만 2000여 권에, 함과 모자, 곡괭이, 현대 미술 작품 등 다양한 한국 미술 관련 물품을 모으고 또 판매한다.

“분청사기가 내 마음에 구멍을 뚫었다”

한국 미술과 사랑에 푹 빠진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회장 로버트 털리

글·사진_ 이주사랑 기자 jsrlee@koreadaily.com 편집_ 임혜수

구글에서 ‘코리안 아트’를 검색하면 맨 위에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라는 단체의 웹사이트가 뜬다. 한국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비영리 단체는 디트로이트 출신 로버트 털리(51)가 2008년 설립한 단체다. 회원만 3000여 명. 한인과 타민족 비율은 반반 정도. 단체는 회원들에게 한국 미술과 관련된 정기 영어 간행물을 발행하고, 회원들이 함께 한국 미술품을 찾아 미국 전역을 투어한다.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는 털리는 래퍼들의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면서도 한국 미술품 컬렉터이자 딜러로도 활동한다. 그를 만나봤다.